

崔振學 건협 회장, 경상의대 정년퇴임



최진학 회장

崔振學 건협 회장은, 지난 2월 23일 경상의대에서 정년퇴임식을 가졌다.

최회장은 '55년 서울의대 졸업 이후, '62년 한일병원 내과과장, '74년 한일병원장, 대한병원협회 상임이사, '77년 세계 병원연맹총회 한국 대표 '78년 인천 길병원 원장, '88년 대한 의학협회 상근 부회장, '81년 한국 보훈병원 원장, '86년 경상의대 부속 병원장 등을 역임하였고, 이외에도 서울시 행정자문위원, 보사부 정책자문위

지난 2월 23일, 경상의대서 퇴임식 가져

원 등을 지내기도 했다.

약 40여년간의 의료생활 동안 최회장은 학술분야 뿐만 아니라 의료계 일선, 병원행정, 국가적 의료사업 등 다방면으로 업적을 쌓았다. 특히 경상의대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소화기내과학의 발전을 위해 연구활동을 꾸준히 해왔으며, 후진 양성을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한편 이날 정년퇴임식에는, 최진학 회장의 가족, 경상의대 교수·학생, 건협 관계자 등이 참석해 최회장의 정년 퇴임을 축하하는 한편 이후의 보다 건강하고 발전적인 삶을 기원했다. 또 경상의대 내과학교실은 정년퇴임 기념 논문집을 펴내 이날 최교수에게 헌정했다.

수원시민 무료 혈액형, 당뇨 검사

건협 경기지부, 지난 3월 31일까지



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도지부는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31일까지 수원시민 무료 혈액형 및 당뇨 검사를 실시했다. 당뇨병의 유무와 자신의 혈액형을 미리 알아 둬으로써 자신의 건강관리 및 위급상황 발생시의 응급처치를 위해 실시된 이번 무료검사는 수원시내 각 APT 단지를 순회하면서 검사를 하였으며, 수원시민 1,500여명이 검사를 받았다.

한상진 인천지부 사무국장, 대통령 표창

지난 4월 7일, 보건의 날 기념식서



제22회 보건의 날 기념식이 4월 7일, 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있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국민 건강 증진에 공이 많은 인사 284명에 대한 훈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보건사회부 표창 시상이 각각 있었는데, 건협에서는 한상진 인천지부 사무국장이 국민 건강 증진 및 복지사회 구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한편 서상목 보건사회부 장관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그동안 많은 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국민 보건의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 왔으나 아직까지도 국민 보건에 대한 새롭고 올바른 인식, 질병예방적 차원의 보건교육, 각종 질병의 예방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국민의 자발적 행동 등 많은 과제들이 있으며, 이의 해결을 위해 정부는 국립 암센터 건립, 국민건강증진법 제정을 비롯한 여러 측면의 투자 및 지원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면서, 「국가보건, 우리의 건강증진, 건강한 사회 실현은 우리 모두의 일이므로,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국민 보건 발전에 기여하자」고 당부했다.

기생충검사 정도관리 결의

건협, 지난 3월 9일 결의대회 가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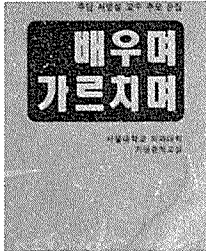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지난 3월 9일, 기생충 관리 사업에 대한 정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것을 약속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시도지부 사무국장 및 과소장

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가졌다.

건협은 이날, 기생충 검사에서 동일가검물이나 이물질 등에 대한 검사를 거부하고, 공공질서와 복리에 반하는 의료업무에는 중사하거나 관여하지 않으며, 국민건강증진과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된 결의문을 채택하고 국민 건강생활 유지를 통한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했다.

故 徐丙高 前 회장 추모동판 제막



고 서회장 추모문집

제작했다.

교실 창설 40주년을 맞아, 54년 국내 최초로 서울의대에 기생충학교실

서울의대 기생충학교실은 지난 3월, 故 徐丙高 前 건협 회장(前 서울의대 교수)의 기생충질환 퇴치에 대한 업적을 기리기 위한 추모패를

서울의대 기생충학 교실, 추모집도 펴내

을 창설한 이래 기생충 감염 예방 및 학문적 발전,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일생을 바친 故 서회장의 뜻을 기리고 기생충학의 보다 큰 발전을 기원하면서 이 추모동판을 제작하게 되었다고 교실측은 동판 제막의 의의를 밝혔다.

한편 서울의대 기생충학교실은 고인에 대한 각계의 회고와 평소의 고인의 이념과 업적을 모아 엮은 추모문집 “배우며 가르치며”도 펴냈다.

건협, 건강관리 강조주간에 무료검사 등

보건의 달 기념행사, 다채롭게 마련

한국건강관리협회는 4월 보건의 달을 맞이하여 국민보건의식 계몽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다.

매년 보건의 달에 건협이 설정하는 건강관리 강조주간인 4월 11일부터 16일에는, 서울 을지로 롯데백화점 앞을 비롯해 전국 20여 장소에 무료 건강상담소와 검사소를 설치하고 건강상담 및 건강검사를 실시한다.

각 해당지역 주민 8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 무료검사에서는 혈액형, 혈당·혈압·소변·간염·기생충검사 등이 실시될 예정이다.

건협 부산지부는 4월 11일과 18일, 14시 등 2회에 걸쳐 부산일보사 대강당에서 간질환 및 간암에 대한 특별 공개강좌를 준비해 놓고 있다. 강사는 서울 고려병원의 이상중 내과부장.

또, 건협 대전·충남지부는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윤락여성·파출부·영세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상담 및 무료검사를 대전시 동구 정동 성병간이 진료소에서 갖는다.

한편 건협 광주·전남지부, 경북지부·경남지부 등은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500여명에 대한 무료검사를 실시키로 했다.